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기를

드라마 <닥터탐정> 속 우리 사회 산업재해

글 편집실

<닥터탐정>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미확진질환센터(UDC)'라는 가상의 기관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원인을 찾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회적 비리를 폭로하고, 산업현장의 구조적·환경적 문제를 파헤치는 모습에서 희열감을 느끼게 되지만, 일하면서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의 모습은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더욱이 대부분 사건이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 드라마가 계속될 때마다 충격과 울림은 묵직할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강조의 달'을 맞아 <닥터탐정> 속 우리 사회 산업재해를 살피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1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2016년)

TL메트로 비정규직 정하랑(곽동연)은 홀로 스크린도어 점검에 나섰다가 선로에 떨어져 참변을 당한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의 모티브로, 정하랑 가방에 컵라면이 들어있던 것까지 당시의 모습과 똑같다. 안전 수칙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사망 노동자는 혼자 작업을 했다. 당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는 비정규직 문제, 위험의 외주화,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자 문제 등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남겼지만, 가장 힘없는 노동자가 위험을 떠맡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2 태국 여성 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사고 (2005년)

정하랑은 참변을 당하기 전 근육경련 증상에 시달렸다. UDC 팀원들은 TL메트로가 세척제로 노말헥산을 사용했다는 점을 밝혀낸다. 노말헥산으로 인한 경련 탓에 선로에 추락했다는 것인데, 노말헥산은 신경독성으로 근육마비를 일으킨다. 노말헥산 중독 사고는 2005년 '앉은뱅이병'으로 익숙한 사고다. 태국 여성 노동자 8명이 노말헥산에 중독돼 팔다리가 마비되면서 걷지 못하는 '말초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당시 노동자들은 노말헥산을 이용해 컴퓨터 부품의 얼룩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

#3

화장품 공장 내 지게차 사망 사고

(2015년)

UDC 허민기(봉태규)에게는 아픈 사연이 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지만, 사고를 은폐하려던 공장 측은 119구급차를 돌려보냈고 결국 아버지는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만다.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이는 2015년 충북 청주 화장품 제조공장에서의 실제 발생한 사건이다. 회사 측은 회사 지정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부상자를 방치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무는 데 그쳤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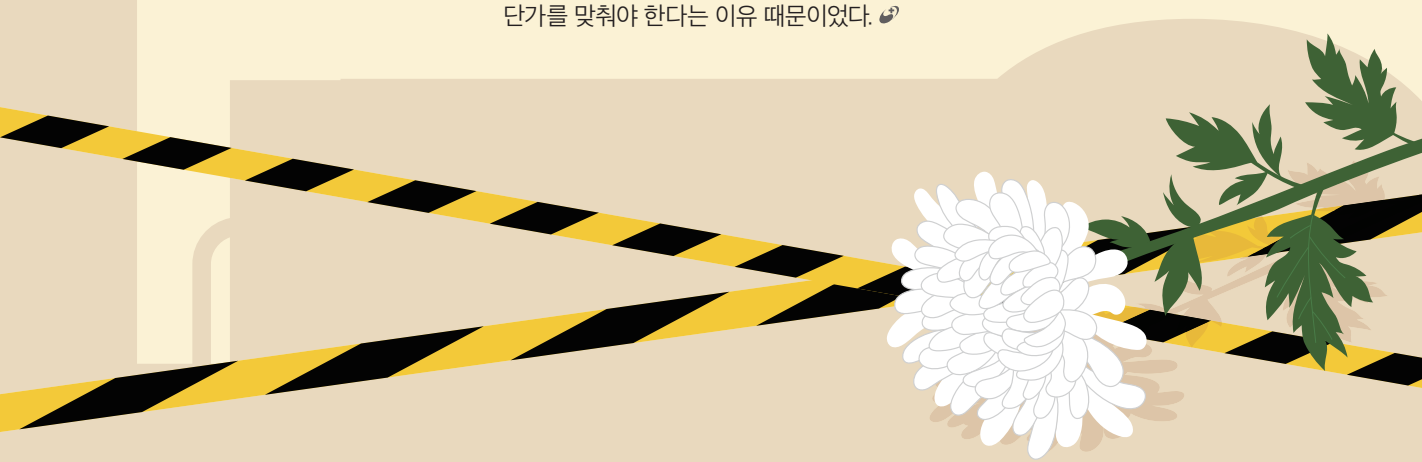
전구 공장의 집단 수은 중독 사고

(2015년)

UDC 도중은(박진희)은 정하랑의 경련 증상에 계속 의문을 품고, 정하랑이 이용했던 기숙사에 잠입하기 이른다. 기숙사 옆에는 공업용 세정제 공장으로 사용했던 폐건물이 있었고, 수은이 건물 전체에 퍼져있었다. 에피소드는 2015년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집단 수은 중독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수은 관련 최악의 산업재해로 산재 신청 노동자는 10명에 달했다. 한편, 수은 관련 가장 처음 알려진 사고는, 이른바 1988년 '문송면 사건'이다. 온도계생산공장에서 일한 문송면 군은 두통과 전신 통증, 피가 날 때까지 긁을 정도의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했다. 14kg의 체중감소도 있었다. 남영전구 수은 중독 노동자들도 비슷한 증상이었다.

#5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고

(2016년)

정하랑의 선배 박혜미(배누리)는 원인불명의 이유로 시력에 이상이 생겨 승용차와 충돌하고 만다. 이후 에필로그에선 메탄올 중독 실명 피해자 이진희 씨의 인터뷰가 공개된다. 이진희 씨는 삼성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로, 2016년 발생한 메탄올 중독의 피해 노동자다. 당시 시력을 잃은 노동자들은 모두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메탄올을 사용했으며, 1년여 사이 6명이 시력을 잃었다. 회사가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메탄올을 사용한 것은 납품단가를 맞춰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